

진남관, 보수공사 10년만 재개방

195억 투입 건물 뒤통림 등 해결
기존 기둥·초석·목자재 등 재사용
전통 기와 사용 기둥·처마 바로잡아

여수 진남관이 10년에 걸친 해체 보수공사를 마치고 개방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한 진남관은 오랜 세월로 건물의 뒤통림, 지반 하부 침식 등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수공사에 돌입했다.

과거에도 일제의 훼손, 바닷가 습기, 목재를 갇아 먹는 흰개미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보수됐지만, 건물 전체를 해체해 보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수시는 진남관 해체 과정에서 나온 기둥 68개를 일제히 훼손하기 전인 70개로 원형 복원하고 10개를 교체했다. 초석 70개와 목자재 6,000여개는 복원에 최대한으로 사용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대량 16개 중 1개를 교체했으며, 지붕에는 전통 방식으로 구운 기와 5만 4,000장을 사용해 기둥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았다.

진남관 이름표인 편액은 상당 부분 손상돼 내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가유산수리기술표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각한 편액을 현액했다. 기존 편액은 보존 처리를 한 뒤 유희대공예



여수 진남관이 10년에 걸친 해체 보수공사를 마치고 개방했다.

여수시 제공

정인 여수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진남관은 단층 팔작지붕 형태의 정면 15칸, 측면 5칸, 건평 780㎡의 건물로 현존하는 지방관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963년 1월에는 보물, 2001년 4월에는 국보로 승격 지정됐으며, 여수의 유일한 국보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1년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영 절도사로 부임해 '진해루' 누각에 머물며 전쟁에 임했다. 진해루는 정유재란 때 왜구에 의해 불탔으나 1599년 삼도수군통제사

이시언이 진해루 터에 75칸 규모 객사 진남관을 건립했다. 이후 진남관은 1716년 전라좌수사 이여옥이 근무한 당시 불이 나 소실됐지만 2년 뒤 전라좌수사 이제면이 중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진남관 재개관을 시작으로 전라좌수영 동헌 역사문화공원과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 거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여수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여수시가 7월부터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성산공원 물놀이장. 여수시 제공

내달부터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 운영

바닥분수 9곳 27일부터 가동

여수시는 오는 7월부터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은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3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전반(10-12시)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예약과 선착순, 오후반(2-5시)은 선착순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매주 월요일과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시설 정비 및 저수조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예약은 7월 1일부터 접수하며 성산공원 150명, 여문공원 50명의

로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조성된 생각기움 체험놀이터 암골못공원, 강남정공원 2곳과 이순신공원, 동동공원, 해변문화공원 등 7곳 내 바닥분수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바닥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45분 가동, 15분 휴식으로 반복 운영된다.

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정비를 마치고 27일부터 가동된다. 이순신광장과 남산공원에 설치된 인공 분수는 지난달부터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다양한 가족 지원·청년도시 등 5대 전략 제안

중장기 인구정책 용역 보고회

여수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역 인구 현황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가 맡아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인구정책위원회,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신규 제안 사업을 논의했다.

용역사는 "다양한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여수"라는 비전 아래 인구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의 공존, 정주성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용역사는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 이 행복한 여수 △다양한 가족 지원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 조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40개 세부 사업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여수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용역 결과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향후 인구정책 추진 전략의 뼈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과 지표 기반 피드백 체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점검·수정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구정책은 주거, 일자리,

돌봄,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생애주기와 도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어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제안된 정책 사업들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인구정책으로 다듬고 여수시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고향기부금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 지원

여수시는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6명에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대학 진학자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는 '여수형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여수시와 전남도가 공동 부담한 150만원에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1인당 총 3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주거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공과금 등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과 여

성가족과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자립지원금을 받은 한 청년은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됐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복지 선순환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공무원 대상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시설 견학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둔덕정수장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 견학은 둔덕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을 바로 알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공무원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둔덕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여수시는 지난 5년간 총 435억원을 투입해 올해 3월 20일 준공했다. 하루 11만 2,500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여수권, 돌산, 소라, 울촌 등에 급수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엠에이주식회사

- 화장실 칸막이
- 실내벽체 마감패널
- 이동식 화장실
- 벽천장용 흡음재

조달청등록업체

TEL. 062) 710-1800 FAX. 062) 710-66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0-8